

다가와 주오

박경호

늦가을 가을비가 한량없이
누구의 가슴을 알고 파고드는가
그대 떠난 후 홀로 애태움으로 눈물짓는 모습을
쓰러지는 육신의 처절함을 아셨나요
비 그치면 싸늘한 겨울인 것을
모를 리 없이 내리지는 않을 텐데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잊지 못하고
걱정을 흘리셨던 임이어
세상 살아야 하는 가슴은 어찌라고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나요
더 이상 쓰러지고 싶지 않아요
나이 값의 짝이 외로움으로 남았는데
다가와 주오
차라리 어서 오라는 손짓을 하시지요
정겨워 달려 갈 것이니 그 사랑 되돌려 주오
내게 영원한 그대여!

사랑은 영원하다. 보내고 혼자 지낸지 오랜 동안 육신의 처절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의연해야 할 그대가 눈물을 가을비로 보이면 세상을 더 살아야 하는 가슴은 어찌 하나. 더 이상 쓰러지고 싶지 않은 외로움을. 차라리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못 받은 사랑 되돌리듯이 훨씬 나올 것이오.

화자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달려가 받지 못한 사랑 되돌려 받기를 기대한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 하고 싶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가면서 흘리던 걱정 내려놓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누구도 바라지 않던 오고 가는 장면의 연출을 삼키면서 되찾고 싶은 그 사랑 간직하기 바라오.(윤제철)

데칼코마니

-도시락을 먹으며

이 경 업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데칼코마니’(décalcomanie-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법)라는 기법을 적용해 놓으신 듯하다.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늙으면 도로 애가 된다거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점 등은 데칼코마니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다.

나는 이제 막 예순 언저리에 들어섰다. 수구초심이니 공수래공수거니 하면서 마치 다 살은 사람처럼 굴기에는 아직 한참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어느 나이를 정점으로 해서 삶이 차츰 반으로 접혀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건 어쩌면 유한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 속에 파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나는 몇 해 째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을 때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마음이 든다. 누구나 그랬듯이 학창시절에도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도시락을 싸주셨다. 그 시절에는 도시락을 ‘변또’라고 했다. 일본어 ‘벤토(辨當-bentô)에서 비롯된 말이다. 혼 분식을 한답시고 30% 이상 보리를 섞은 밥은 거의 콩보리밥에 가까웠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깍뚜기, 마늘쫑, 콩자반 등이 전부였지만, 변또를 까먹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한 때였음은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다 느낄 것이다.

내가 도시락을 먹을 때 데칼코마니를 진하게 느끼는 까닭은 아내가 어느덧 변또를 싸주시던 어머니의 나이 또래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마흔 둘에 막내인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다. 말하자면 나는 꽤나 늦둥이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내가 변또를 싸들고 동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때에는 어머니는 이미 오십 줄 후반이 되어 계셨다. 그래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서는 어렴풋이나마 어머니의 체취가 느껴진다.

도시락 반찬 위에
알알이 뿌려진 깨소금은
당신의 살뜰한 마음이어라.

밥 한 술 뜨고, 창밖 한 번 내다보고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에도
느껴지는 애잔한 숨결

다림질 하는 뒷모습
샤방샤방하던 허리춤은

흘러간 연둑빛 추억이지만

해도 둥글, 달도 둥글,
얼굴도 둥글
둥그런 것은 모두 사랑이여라
- 이정엽의 「아내」전문

스물여섯에 교편을 잡은 나는 지금까지 삼십 여 년을 교직에 몸담아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정년이 머잖아 눈앞에 와 있지만 아직 퇴임 후의 일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 몸도 부실하고 이렇다 할 능력도 부족하니 퇴임을 하면 아마도 집에 있는 날이 많을 것이다. 그리되면 취학 전에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닐 때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삼시췌키'라는 비속어(卑俗語)를 들어가며 살아가게 될 런지도 모르겠다. 그런 모습이라면 나의 데칼코마니는 더욱 또렷해지는 셈이다.

매일 같이 준비하는 것이 귀찮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주는 아내가 고맙기만 하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출근 차 현관문을 나설 때면, 도시락을 건네는 아내에게 손가락 하트를 날리곤 했다. 그러면 아내도 배시시 웃으며 하트를 보내온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손가락 하트는 나의 데칼코마니의 요소가 아닌 듯하다. 그 옛날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시고 고단하실 텐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변또를 싸주시는 어머니에게는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늙둥이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 마디 듣지도 못하시고 내가 고등학교 삼학년이던 겨울 한복판에 세상을 등지시고야 말았다.

마흔이 넘으신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는 고된 농사일에 진이 얼추 다 빠지셨던 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까닭인지 나는 어렸을 때 병치레를 많이 했다고 한다. 내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종종 "고비를 넘긴 사람은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그러나 나는 나의 데칼코마니가 완전해질까봐 두렵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명 수필가는 말하기를, '청자연적(靑瓷硯滴)에 새겨진 꽃잎 중 하나가 살짝 꼬부라진 것을 눈에 거슬리지 않은 파격(破格)'이라고 하였다.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면, 나의 데칼코마니에 그러한 '파격의 멋'이 없하기를 늘 기도한다. 어린 시절 과편처럼 박혀 있는 아꼈던 기억만큼은 피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아내에게 보내는 손가락 하트가 혹시 '파격의 멋'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남남으로 만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부부에게 '해로동혈(偕老同穴)'이라는 사자성어보다 더 복된 덕담은 없을 듯하다. 모든 삶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모님께서 서로 사랑을 하여 나를 세상에 내었듯이,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데칼코마니는 멋들어지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한다.